

단양쑥부쟁이가 학술적 이름으로 태어나기까지¹⁾

강 상 준²⁾

충북대학교 명예교수·협회 충북지부장

쑥부쟁이의 전설

옛날 산골마을에 아주 가난한 대장장이(冶匠, 야장)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11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 대장장이의 큰 딸은 <쑥> 나물을 잘 먹는 동생들을 위하여 봄이면 늘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향긋한 <쑥>을 캐다가 나물반찬을 만들거나 쑥떡 등을 만들어 동생들을 맛있게 먹였다. 그런 모습을 본 마을사람들이 그 처녀를 가리켜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대장장이의 옛말)의 딸”이라는 의미로 <쑥부쟁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식물 가운데 속명(屬名)인 *Aster*가 붙은 이름의 식물은 단양쑥부쟁이를 포함하여 18개나 되는데(이창복 1979), *Aster*란 두상화서(頭狀花序, Capitulum, Flower head) 모양이 *Aster*(별)와 같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단양쑥부쟁이는 쑥부쟁이 가운데 남한강변의 자갈밭 등에서 아주 드물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환경부의 멸종위기식물 II급으로 보호하는 식물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

특히 남한강 하천 복원사업에서 각 언론매체들은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기사 또는 방송을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단양쑥부쟁이가 언제 발견되었느냐 에서부터 우찌야마(內山)가 발견했느니, 나까이(中井)가 명명했느니, 아니면 기다무라(北村)가 명명했느니, 설이 너무 분분하고 언론매체마다 기사 내용이 달라서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기요(理科大學紀要)의 조선식물지 2편에 실린 최초의 논문과 지난 1월 경도제국대학 이과기요(理科紀要)에 실린 논문을 경도대학의 도서관을 통하여 직접 입수하여 읽어 본 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 이들 논문 및 자료들에 근거하여 그 발견, 채집 및 명명(命名)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단양쑥부쟁이의 채집과 명명

일제 강점기였던 때 동경제국대학의 식물원(Botanical Garden, 1877년 설립)에서 십장(什長-인부를 감독, 지시하는 인부의 우두머리)이었던 일본인 우찌야마 도미지로(內山

1)Brief History of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Kitamura known to the World

2)KANG, Sang-Joon, Prof. Emeritu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Chungbuk Chap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mails: kangsj@chungbuk.ac.kr, kangsj1940@gmail.com

富太郎가 1900년(고종4년)~1902년(고종6년) 사이 두 번에 걸쳐 한국으로 파견되어 식물 채집을 하던 중, 1902년 10월 2일 당시 경상도(慶尙)의 수안포(水安浦)에서 처음 발견, 채집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며, 광복 후 20년의 시간이 지난 1965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 이창복 교수가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남한강 상류인 단양의 냇가에서 단양쭉부쟁이 서식지를 발견, 서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첫 발견 및 채집한 곳은 충북 <단양>이 아니라 원전(原典)에 분명 경상 수안포(慶尙水安浦)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첫 발견지를 기념하여 한국명을 붙일 것이라면 오히려 <수안포쭉부쟁이(수안보쭉부쟁이)>가 옳은 이름일 것이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인이었던 우찌야마(Uchiyama) 씨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역 부근에 위치한 충청도(지금의 충북)의 수안보를 경상도로 착각했거나 혹은 방대한 채집물들을 정리하면서 기록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 <수안포(水安浦, Suianpho)>는 <수안보>의 일본인 발음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동경대학 식물원의 제4대 원장이었던 식물분류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Nakai Takenoshin) 박사(그림 1)가 이 식물

을 동정한 뒤 1911년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기요(理科大學紀要, Journal of the College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Vol. 31의 조선식물지 제2편(Flora Koreana. Pars Secunda.)에서 *Aster altaicus* Willd.로 처음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한국명 또는 일본어 표기는 기술되어있지 않음), 그 때 채집 장소, 채집 년월일 및 채집자를 Kyöng-san:Suianpho Oct. 2, 1902(T. Uchiyama)로 표기하였으며(그림 1) *Aster altaicus* auct*. Nakai라는 이름을 붙였다가(이우철 1996b), 1941년 植物研究雜誌(The Journal of Japanese Botany) 17:684에 *Aster uchiyamae* Nakai라는 새로운 종(種, Species)으로 학계에 보고하였다.

위의 *auct.는 라틴어 auctorum이란 뜻으로 린네(Carl von Linnaeus) 이외의 다른 분류학 전문가가 어떤 식물에 학명을 붙였다는 뜻이다(Oxford Dictionary of Abbreviation 1998).

1937년 국화과식물(菊花科植物)의 분류 전문가인 경도제국대학의 기타무라 지로(北村四郎, Kitamura Siro, 그림 2) 교수에 의해서 *Aster uchiyamae* Nakai는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Aster altaicus* Willd.의 변종인 *Aster altaicus* Willd. var. *uchiyamae*(Nakai) Kitamura라는 지금의 학명으로 새로 명명하여(그림 2 및 3), 경도제국대학 이과기요(理科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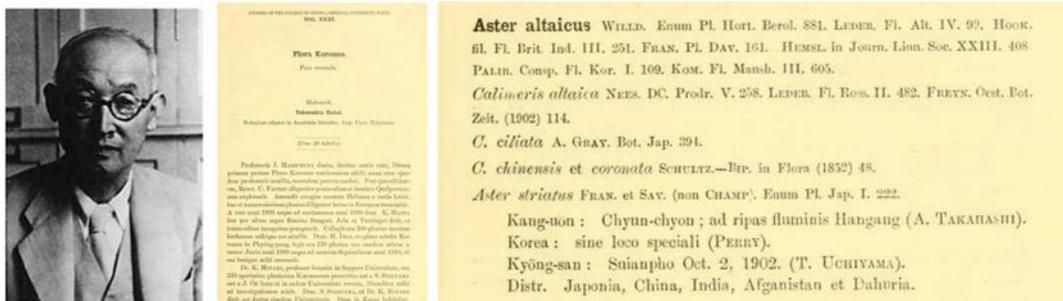


그림 1.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박사(왼쪽) 및 최초의 논문(가운데 및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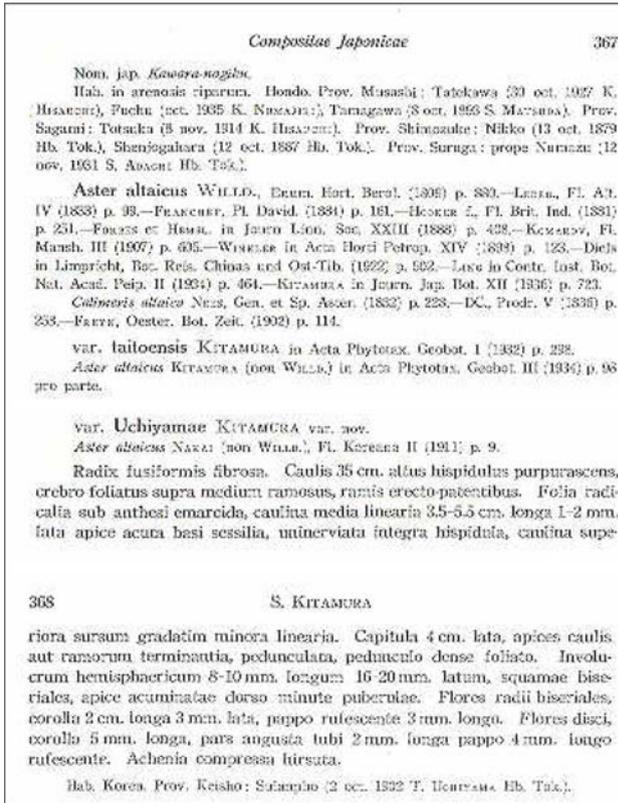


그림 2. 경도제국대학 理科紀要의 논문 *Compositae Japonicae*의 <단양쑥부쟁이> 부분 (367쪽~368쪽) 및 기다무라 지로(北村四郎)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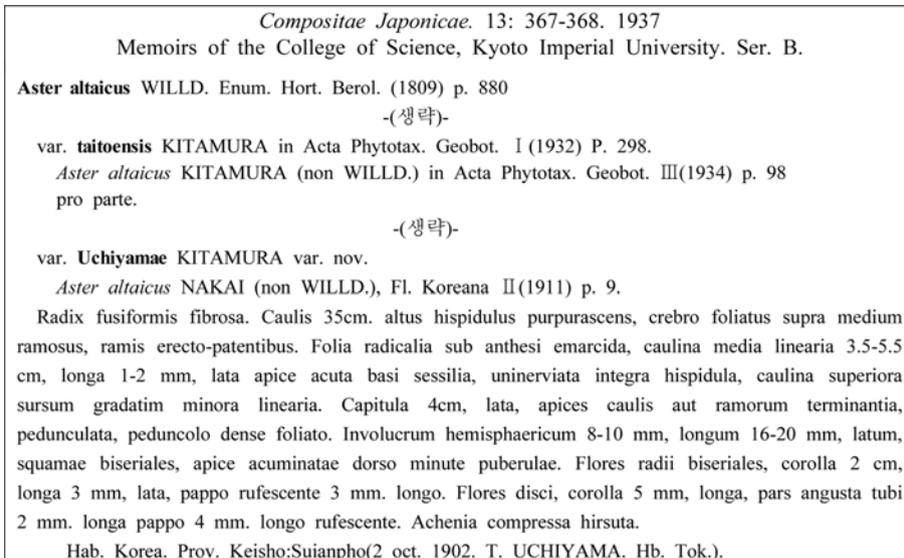


그림 3. *Compositae Japonicae*의 <단양쑥부쟁이> 부분을 필자가 옮긴 것(라틴어)



그림 4. *Aster altaicus* WILLD., *A. altaicus* var. *uchiyamae* KITAM. 및 *A. altaicus* var. *taitoensis* KITAM.의 기준표본과 모식표본
 (1) *Aster altaicus* WILLD.: 파키스탄 Mankial에서 채집한 모식표본
 (2) *A. altaicus* var. *uchiyamae* KITAM.: 동경대학 소장의 사진 기준표본(이우철 1996a)
 (3) *A. altaicus* var. *taitoensis* KITAM.: 경도대학 소장의 모식표본.

Memoirs of the College of Science, Kyoto Imperial University. Ser. B. 13~368, 1937, Compos. Jap. 1:367, 1937)의 논문 총 421쪽 가운데 367~368쪽에 새로운 변종(變種)으로 기재 보고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졌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명은 바로 이것이다.

일본에도 *Aster altaicus* Willd.와 비슷한 식물인 *Aster kantoensis* KITAMURA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하원야국(河原野菊 Kawaranokiku, かわらのぎく)이라고 부르고 있고, 특히 대만(台灣, Formosa)에 서식하는 변종인 *Aster altaicus* var. *taitoensis* KITAMURA(鐵桿蒿, 철한고, タイトウヤマチノキク)는 台東縣(태동현, Taitung County)의 卑南溪(비남계, Peinansi)에서 1932년 3월 20일 기다무라 교수가 직접 발견, 채집하여 변종으로 발표함으로써 *Aster altaicus* Willd.의 변종은 단양쑥부쟁이를 포함하여 2개 변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4).

단양쑥부쟁이의 기준표본(基準標本, Type specimen)은 170만점의 식물표본을 소장하



그림 5. *Aster altaicus* Willd. 및 그 변종의 서식지 (Pakistan의 Mankial 지역, 러시아 바이칼호의 Zumugol island, 한국, 중국의 Shandong과 Yunnan 지역, 대만 Taitung Hsien 등)

고 있다는 일본 동경대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우철 1996a).

Aster altaicus Willd.는 러시아 바이칼호의 주무골 섬(Zumugol island), 중국의 산둥(Shandong) 지역과 윈난(Yunnan) 지역, 한국, 파키스탄(Pakistan), 대만(Taiwan)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그림 5), 한국과 대만의 것은 그 변종이다.

단양쑥부쟁이의 다양한 이름

한국 식물분류학의 태두였던 정태현 박사(그림 6)는 1956년 한국식물도감 하권 초본부에 단양쑥부쟁이라든가 솔잎국화란 식물명의 기재는 없으나 <개쑥부장이(鐵桿篙 철한고, *Aster Hayatae* Lev. and Va.=*Aster altaicus* Willd.)>란 식물명에서 Va.=*Aster altaicus* Willd.를 병기하였는데, 여기에서 Va.란 refer to(참조하다)의 의미이다.

이영로 교수는 1996년 원색한국식물도감에서 단양쑥부쟁이와 <단양쑥부장이>를 병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 식물도감(도봉섭, 임록재 1988)에는 *Aster altaicus* Willd.를 <큰털쑥부쟁이>로, 역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식물원색도감(김현삼, 리수진, 박형선, 김매근 1988)에는 *Aster Hayatae* Lev. et Van.를 남한의 <개쑥부장이>와 다르게 <큰털개쑥부쟁이>로 등재하고 있어 혼동이 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동일한 식물의 이름을 서로 달리 부르고 있고 또 중국 옌벤에서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으니 통일을 염두에 두어 언젠가 식물명에 대한 대수술 또는 공동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명(韓國名, Korean name)은 1949년 문교부 <우리나라 식물명감>에서 처음으로 박만규 교수(그림 6)가 <솔잎국화>로 명명했으나(식물 애호가들은 단양쑥부쟁이를 송엽국(松葉菊) 혹은 자채(紫菜)로 부르고 있다), 1965년 9월 22일 이창복 교수(그림 6)가 단양에서 이 식물을 다시 확인한 후 1969년 서울대학교 논문집 <우리나라 식물자원> 및 1979년 대한식물도감에서 <단양쑥부쟁이>라 기술했으며, 1986년 경북대학교 양인석 교수(그림 6)는 <한국식물검색편람>에서 두 이름의 절충안으로 <솔잎쑥부쟁이>로 표기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단양쑥부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창복 교수가 저술한 대한식물도감에 단양쑥부쟁이라고 기록했으니 그 책으로 공부했거나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자들 또는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된다.

학명(學名, Scientific Name)은 이름 붙이는 기준이 있지만 국명(韓國名, Korean Name)은 먼저 붙이는 사람이 우선권(Priority)을 갖는다. 식물의 특징(삼지구엽초), 발견 장소(금강초롱), 발견자 이름(장역새) 등을 따서



정태현 박사(성균관대)
(1882.9.21~1971.11.21)



박만규 박사(고려대)
(1906.4.13.~1977.10.27)



양인석 박사(경북대)
(1909.11.26~2003.11.3.)



이창복 박사(서울대)
(1919. 6. 6.~2003. 7. 20.)

그림 6. 한국식물분류학계의 원로

식물의 이름을 짓거나 붙이지만 막말로 애인의 이름을 붙여도 그만인 것이다(이우철, 2005).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대가인 세분(박만규 교수, 양인석 교수, 이창복 교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솔잎>과 <쑥부쟁이>의 합성어인 <솔잎쑥부쟁이>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단양쑥부쟁이의 보존

1980년 충주댐 담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자인 이창복 교수가 1965년 9월 22일 발견한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인 단양지역 냇가에서는 이미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35년이 지난 후 2000년 단양군 가곡면에서 몇 개체가 발견되어 서식지 보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마자 여름의 태풍으로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2005년 9월 15일 국립수목원이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의 남한강 강변에서 큰군락을 발견했고 환경부는 이 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하천복원사업으로 여주군을 비롯한 충주시 양성면 비내섬 인근의 집단 서식지는 파헤쳐졌고 그 대신 <대체 서식지>란 이름으로 인근에 이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지만, 단양쑥부쟁이의 생리생태학적 속성으로 보아 언제까지 그 대체 서

식지에서 생활사를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2009년 9월 23일 단양군 단양읍 영백산 인근에서 모래땅이 아닌 바위에서 단양쑥부쟁이를 발견한 바 있으며(상지대학교 임상철 교수), 2010년 10월 20일 4대강 사업구간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일대에도 자생하고 있었다고 하나 공사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버렸다고 한다.

4대강 사업 8공구와 선도 사업지구가 접하고 있는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남한강변 지역의 2,000 m²에 우리나라 특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이 알려졌다(충청일보, 2012.10.11). 집단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자연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이다(그림 7). 이 지역은 남한강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지점인 관계로 그 보존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현삼, 리수진, 박형선, 김매근, 1988. 식물원색도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880.
- 도봉섭, 임록재, 1988. 식물도감. 과학출판사. p.1023.
- 박만규, 1949. 우리나라식물명감. 문교부. p.340+176.
- 양인석. 1986. 한국식물검색편람. 경북대학교 출판부. p.470.



그림 7. 단양쑥부쟁이의 초기성장 및 개화 상태

- 이영로, 1996. 원색 한국식물도감. 교학사. p.1237.
- 이우철, 1996a.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 아카데미서적. p.624.
- 이우철, 1996b. 한국식물명고. 아카데미서적. p.1688.
- 이우철, 2005. 한국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p.728.
- 이창복, 1979.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p.990.
- 정태현, 1956. 한국식물도감. 하권 초본부. 서울 신지사. p.1025.
- 충청일보, 2012. 멸종위기 단양쭈부쟁이 발견. 충청일보(2012년 10월 11일 기사).
- Kitamura, S. 1932. *Aster altaicus* var. *taitoensis* Kitamura. Acta Phytotaxonomica et Geobotanica 1: 289.
- Kitamura, S. 1937. *Compositae Japonicae*. Memoirs of the College of Science, Kyoto Imperial University. Ser. B. 13: 367-368.
- Nakai, T. 1911. Flora Koreana. Pars Secunda. Journal of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31: 9.
- Nakai, T. 1941. *Aster uchiyamae* Nakai. The Journal of Japanese Botany. 17: 684.
- Oxford University, 1998. Oxford Dictionary of Abbrevi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p.415.